ISU

2025 WINTER
VOL. 119

이주요, <가습기> 1998-1999,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33기 신입사원

이수인의 반려생활
이수펫갤러리

ISU TRAVEL
AI 추천 여행 – 캐나다 '버킷리스트' 겨울 여행

이수 튜브
책은 도끼, 책은 벽돌!!

이수 테이블
환대(welcome)라는 성분의 아늑한 모성의 맛 – 잡채

ISU PLACE
익숙한 사물에서 생경한 미술작품으로 ≪사물들의 힘≫

CONTENTS

06 신년사

08 Focus & News

15 Young ISU
공채 33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22 이수인의 반려생활, 이수펫갤러리
한아린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2팀)

24 이수 플레이리스트
멀리 가는 향기, 인생 음악 공유해요!
강지연 대리(이수AMC 공사관리팀)
정학준 대리(이수앱지스 효능평가2파트)
이태인 사원(이수화학 계전2파트)

28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김문환 수석((주)이수 경영지원팀)
문성진 대리(이수스페셜티케미컬 기획팀)
손문영 사원(이수화학 신사업개발팀)

32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이원준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정주영 대리(이수앱지스 제품파트)

36 ISU TRAVEL
AI 추천 여행 코스
캐나다 '버킷리스트' 겨울 여행

40 이수튜브
묵은 나를 부수고 새로 쌓아 올릴 때
책은 도끼, 책은 벽돌!!

46 이수 테이블
스토리셰프가 차려내는 식탁
환대(welcome)라는 성분의 아늑한 모성의 맛 - 잡채

54 ISU PLACE
익숙한 사물에서 생경한 미술작품으로
사물들의 힘

61 이수 간식 창고
간식 서프라이즈 - 우리 팀에게 쏘세요!

65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66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COVER STORY

일상적 사물들을 통해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를 오가며 미술에 대해 탐구하는 열 명의 작가의 '사물들'을 소개하는 전시 ≪사물들의 힘≫전이 2025년 4월 25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5년 신년호 통권 1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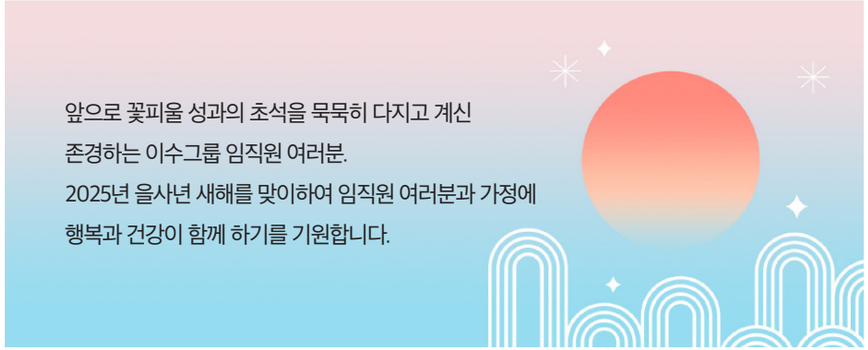
발행일	2025년 1월 17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찬희·안인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신선이·이하연) 이수페타시스(김태형·한수진) 이수건설(김민주)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앱지스(양예슬)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감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도전을 통해
보다 높은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2024년은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세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이수그룹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Li2S Demo Plant 증설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수화학 그린바이오사업부는 호주 스마트팜 시장 진출로 K-스마트팜 확대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4공장 완공 및 양산 개시를 통해 기술력 제고와 외형 확장을 도모하였으며, 이수앱지스는 ISU104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꽃피울 성과의 초석을 묵묵히 다지고 계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2025년에는 복합적 위기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강도 높은 통상 압박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대내외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기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혁신'을 추진력 삼아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혁신은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감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감한 변화의 밑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Li2S 상업화 목적의 Mother Plant를 준공하여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며, 이수페타시스는 신기술이 접목된 5공장 투자를 통해 확실한 Global Top Tier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그룹 내 모든 회사가 담대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도전을 통한 변화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기를 타개하는 혁신의 출발점은 명확한 위기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의 가장 명백한 위기는 불확실성의 심화입니다. 환율을 위시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갈등 지속으로 인한 유가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가변성까지 얹힌 형국입니다. 예상되는 혼돈 앞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선제적 대응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부문별로 핵심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협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다 높은 기업 가치의 달성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실적과 선명한 미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 경쟁력', 자동화와 DT를 바탕으로 최고의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기본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시장과 사회에서 재무적 성과 이상의 확고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이수 가족 여러분,

냉정하고 엄중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맞이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혁신을 일상화하는 자세로 2025년을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의 매일을 축적하다 보면, 2025년의 끝에는 분명 보다 높아진 기업의 가치, 그리고 보다 높아진 우리의 가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5. 1. 2.

이수그룹 회장 **김 상 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기술과 변화의 물결 속으로 - DIVE IN CES 2025

김상범 회장 경영 활동

김상범 회장 및 그룹사 사장단 CES 2025 참석

이수그룹의 김상범 회장은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 참석했습니다. 김상범 회장은 그룹사 사장단, (주)이수 김세민 사업총괄기획실장과 동행해 소니, TLC, Gigabyte, Honda, 삼성, LG 등 다양한 국내외 IT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보며 첨단 기술 트렌드를 점검하고, 사업 계획 구상에 나섰습니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 부스를 중점적으로 참관하며, 당사의 기술이 활용된 AI 컴퓨팅 부스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CES 행사장에는 (주)이수인터내셔널이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Garmin' 브랜드의 부스가 별도 마련되었으며, 김 회장은 해당 부스에도 방문하여 당사가 취급하는 제품군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이수그룹 계열사들이 각 사업 부문에서 AI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CES 참관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필수 소재인 초고다층 PCB를 생산하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AI를 접목시킨 스마트 팜으로 호주에 진출한 이수화학, AI를 활용해 희귀질환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이수앱지스 등을 보유한 이수그룹 임직원들의 참석은 각 사업 군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깊이 몰두하라, 탐구하라, 파헤쳐라 - AI 활용법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CES 2025는 작년에 이어 보다 심화된 AI 응용 제품의 축제라 볼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이 특정 분야는 물론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는 현주소를 체험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CES 2025가 던지는 메시지는 AI 활용법을 깊이 몰두하라, 탐구하라, 파헤쳐라 - 라는 의미에서 몰입(DIVE IN)이라는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AI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탐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이수그룹 내 가족들도 이에 발맞추어 AI 활용방법을 몰두하고 탐구해 각 분야의 해당 영역별로 깊이 DIVE IN 해야 할 과제를 받아 안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김상범 회장, 이수페타시스 후난 공장 방문

지난해 10월 31일,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은 이수페타시스 후난 공장을 방문하여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코로나 이후 5년 만이며 그동안 변화된 공장의 모습과 각 공정의 현황을 순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랫동안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 밝아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공장 분위기에 대한 칭찬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본사와 더불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우수한 기업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소부장 산업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지난해 10월 30일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소부장 산업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부장 산업과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도로 이수페타시스는 초고다층 PCB의 기술 혁신 성과와 더불어, 해외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창복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초고다층 PCB 제조 기술 개발에 30년 이상 헌신한 임직원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이수

그룹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주)이수는 지난해 11월 그룹사 미디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대구, 울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미디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미디어 응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교육내용을 학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서로의 미디어 응대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디어 응대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이수

(주)이수 CI(Corporate Identity) 가이드라인 리뉴얼

이수그룹의 'CI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기존 'CI 가이드라인'은 2014년 이수그룹 CI에 맞춰 제작된 매뉴얼로, 이수그룹의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가이드라인 배포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것으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된 사업영역에 따른 사명 정리,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용·지정서체 삭제 등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뉴얼된 'CI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각 사 담당 부서에 PDF 파일과 인쇄물 형태로 배포되었습니다.

이수화학

KAO Wakayama Plant 방문, 공급 협력 강화 및 지속 가능성 논의

지난해 10월 이수화학은 일본의 KAO Wakayama Plant를 방문했습니다. KAO는 일본 세제 시장에서 P&G, LION 등과 함께 업계 선두주자 위치에 있으며, 세제뿐만 아니라 화학, 화장품, 위생용품 등 Household & Healthcare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AO의 Wakayama Plant는 530,000m² 규모의 주요 생산 기지로, 전체 인력 중 40%가 R&D 인력으로 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계면활성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사는 친환경 원료 전환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소방기술 경연 대회 개최

지난해 11월 19일 온산공장에서 소방기술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스페셜티케미컬 5개 팀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임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과 상호 간 협동심을 배양하고, 책임의식을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연 대회는 <수관으로 정확한 목표물 적중>, <방수 및 파열 호스 신속히 교체하기>, <위험물 화재진압>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임직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경품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수건설

부산명지 A-5BL 아파트 2공구 건설공사 수주

지난해 10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부산명지 A-5BL 아파트 2공구>의 종합평가낙찰제 입찰 결과 이수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부산명지 내 A-5BL 일대에 12개동 1,305세대 대규모로 건설되며, 연면적은 53,813평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아파트 건설 사업은 주거 공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대적인 설계와 친환경 건축 자재를 도입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수시스템

고용노동부와 HR플랫폼 MOU 체결

지난해 10월 18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클라우드 HR플랫폼 워크업(WORKUP) 서비스를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업은 이수시스템이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HR시스템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클라우드형 HR플랫폼이며, 현재 100여 개 법인을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높은 수준의 HR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국내 중소기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워크업 서비스는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다면 진단, 수시 성과관리, 그룹사 통합 관리, 대출, 통계, 다국어 기능 등의 신규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수앱지스

국산 파브리병치료제 '파바갈' 출시 10주년… 이수앱지스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국내 기술로 개발된 파브리병 치료제 상용화가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들이 참석해 파브리병의 진단과 치료 전략 등을 공유했습니다. 파바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제로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 로버트 데스닉 교수의 주제 발표와 파브리병 치료 10년 경험에 대한 강연 및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황엽 대표이사는 "파브리병의 치료제 개발 역사를 돌아보고 진료과별 진단 및 치료 현황도 공유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파브리병에 대한 국내외 의료진의 관심을 환기시킨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수AMC

들나무봉사단과 함께 한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

지난해 12월 14일 이수AMC 임직원들은 들나무봉사단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광야교회에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준비된 김장김치는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는 "최근 기후 변화로 김장재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김장김치 나눔이 더욱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추워지는 겨울,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봉사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수AMC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25년 을사(乙巳)년 푸른 뱀의 해,
이수그룹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며

공채 33기 신입사원 22명을 소개합니다.

2025년 새해, 이수그룹의 새내기 가족을 맞게 됩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로 푸른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뱀은 신비로운 에너지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롭고 섬세하며 직관력이 뛰어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와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푸른 뱀의 지혜와 생명력으로 잘 이겨내고
한 층 도약하는 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수화학

초심을 잃지 않고
이수화학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태영 사원, **박태서**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김경완 사원, **강현우** 사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의 모든 길은
저희를 통합니다.

엄태민 선임, **안영빈** 선임, **이찬구** 선임, **강승진** 선임, **안정인** 선임

이수페타시스에서
수련하여
페기 있는
타 부서에 도움이 되는
시님으로
스무스하게 성장하겠습니다.

장영환 선임, **김아현** 선임, **김미연** 선임, **김경민** 선임, **윤세연** 선임, **안희수** 선임

이수시스템

버그 잡고, 코드 짜는,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진예림 선임, **신민경** 선임, **하홍준** 선임, **이아린** 선임

이수앱지스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해내는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박예슬 사원, **진소영** 사원, **주현주** 사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소중한 순간

이수펫갤러리

여름 작가, <또또> oil on canvas, 22×27.3cm

또또는 정말 특이한 친구예요.
점프력이 약한 고양이라고 하면 더 잘 어울리겠네요.
그는 외길 인생을 살고 있는 도도한 저의 친구입니다.

한아린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2팀)

또또

수컷 / 2016. 2. 24생

• **별명**
독도
(또또->도도->독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성격**
INTJ!
강아지 MBTI에서 INTJ가 나왔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는 T에요. 보통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우울하거나 슬퍼 보이면
위로를 해준다는데 그는 안중에도 없어요.
절대 먼저 다가와서 안기지 않습니다.
구슬려도 안 옵니다. 그러나 외출 시에는
가면을 쓴 것처럼 강아지 흉내를 내며
안아달라고 떼쓰는 친구입니다.

대단한 질투심!
질투심이 너무 강합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저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친구 집에 가서 다른 강아지 체취를 묻히고
오면 그날 제 방바닥은 그의 배설물로
가득 찹니다. 참 독특하고 귀여워요.

또또라는 이름을 지은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2016년에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겨울이었는데 저희 집에 오면서 제가 개명을 시켜줬습니다. 또또라고 지은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보자마자 또또가 떠올랐지요.
풀네임은 미스터 또또입니다.

또또가 축구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또또 자랑을 들려주세요.
네, 또또는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간식을 넣은 공을 굴려주면 세 시간도 넘게 공을 굴립니다.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또한 아주 잘생겼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연예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롱다리 미남형이라서 산책할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귀엽다고 몰려온답니다.
그러나 그가 옭옭옭!!!!! 하고 짖어서 다들 놀라며 도망갑니다.
스타성이 뛰어난 거 같아요.

키워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이고 있겠어요. 또또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특이한 친구예요. 점프력이 약한 고양이라고 하면 더 잘 어울리겠네요. 그는 외길 인생을 살고 있는 도도한 저의 친구입니다.
이제 9살인데 앞으로 저랑 50년은 더 살아야 해서 그도 이제는 저한테 맞춰줄 때가 된 거 같아요.
"또또야 나는 부지런히 사룟값을 벌 테니 이젠 내가 부르면 여느 강아지들처럼 달려와서 애교 좀 부려 주렴^^"

독자 여러분의 반려동물 스토리와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소소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반려동물을 작가 유화 손그림 액자로 담아 드립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hjkim1@isu.co.kr

음악은 영혼의 호흡

멀리 가는 향기, 인생 음악 공유해요!

VOL 119
1:24 | 3:35

음악을 듣는다는 건
단지 취미가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산소 공급입니다.

한 곡의 음악으로 나에게 오는 위로와 고무
심신에 안마를 받은 듯한 그 저릿한 순간…

이 코너는 폐가 아닌 귀를 통해 영혼이 쉬는 숨
건강한 일상의 밀도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음악은 머물지 않고
이어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 있으며
멀리 가는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싱그러운 아침 숲길을 걸으며 따뜻하게 위로받는 느낌

강지연 대리 | 이수AMC 공사관리팀

매달 관심 있는 박람회를 가는데, 지난해 <카페&베이커리 페어>, <메가주-펫페어>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먹을거리와 궁금했던 제품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강아지, 고양이 반려인이라면 킨텍스에서 매년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메가주(5월, 11월)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탠딩 에그(Standing Egg) - 숲

평소 출퇴근길에 스탠딩 에그 노래를 자주 즐겨 듣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줄 가사가 잘 들리는 곡들이 많아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취향이 같은 친구와 함께 콘서트에 가서 부르려고 가사도 외웠던 지난 5년 전 기억도 떠오르네요.

"내가 나무라면 넌 바람으로 내게 불어온 걸까"

이 가사는 시의 한 구절을 옮겨 놓은 것처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도심지에서 살다 보면, 우거진 숲과 자연을 보기 힘들죠? 아무 말 없는 조용한 싱그러운 아침 숲을 걸으며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comment

9월, 운전 중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날의 날씨, 파란 하늘, 초록 초록한 나무들과 딱 맞는 예쁜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후 따뜻한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 듣고 있습니다.

숲
스탠딩 에그(Standing Egg)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여름에 두었다
손(SHAUN)

Flashback
엔플라잉(N.Flying)

기댈곳
싸이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 이적
- 한숨 — 이하이
- 가족사진 — 김진호
- 그건 니 생각이고 — 장기하와 얼굴들

가끔 지치고 힘들 때 기댈 곳 더 힘차게 살자고 다짐하는 노래

정학준 대리 | 이수앱지스 효능평가2파트

3년 전부터 위스키의 맛을 알게 된 <위린이>입니다. 힘든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식탁에 앉아 저녁과 함께 즐기는 위스키 한 잔은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더욱 맛있게 위스키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면서 요리 실력이 좋아지다 보니 아내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싸이 - 기댈곳

오랜 학위과정으로 지쳐 있던 저와 친구는 동네의 조그마한 노포에서 서로 힘듦을 이야기하며 한잔하고 있는 중에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백하고 담담하게 부르는 목소리와 가사에 저와 친구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와 눈이 마주쳤을 때 뭔지 모를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삼곤 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했어요…"

comment

감정을 드러내기 힘들고, 괜찮은척해야 하는 제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지치고 힘들 때 이 노래가 기댈 곳이 되어주고, 더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보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긍정 마인드를 세팅시키는 이제는 잘될거야 다 OK

이태인 사원 | 이수화학 계전2파트

바쁜 회사 생활과 퇴근 후의 삶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임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감도 생기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가며,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상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비 - 잘될거야 다 OK

한창 T/A 등으로 바쁜 시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출근하고 있었을 때 유튜브 뮤직을 통해 우연히 '잘될거야 다 OK'라는 노래을 듣게 되었습니다. 즐겨 듣던 신나는 멜로디에 관심을 가졌고, 들어 보니 가사가 힘들었던 저에게 자신감을 주는 밝고 긍정적인 노래였습니다. 그 후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결국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며 에너지를 얻고 하루를 즐겁고 힘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 가족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며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

'포기하기는 아깝잖아요 이제는 잘될거야 다 OK'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사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기에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잘될거야 다 OK
태비(Taeb2)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 정승환
- 사랑한다고 말해줘 — 탑현
- 기댈곳 — 싸이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함께 나누면 환해지는 **우리**

우리는 수많은 <우리> 사이의 존재입니다.
잔잔하게 오는 뭉클한 감동
짜릿하게 휘감는 환호의 순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어지는 사이…
이수 가족 한사람 한사람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넌지시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김문환 수석((주)이수 경영지원팀)

아들과 함께 신명나게 연날리기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연 만들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ㅎㅎ) 연은 방패연 아니면 가오리연이었고, 얇은 나무 살에 한지를 붙여 만들곤 했습니다. 연을 다 만들면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운동장에 나갔지만, 연을 들고 실컷 달리기만 했을 뿐 한 번도 멋지게 날아준 적이 없었던 기억만 가지고 있었죠.
날씨 좋은 날, 광나루 한강공원을 종종 찾았는데, 연을 날리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연을 날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쿠팡에서 비행기 모양 연을 사서 도전해 봤지요. 결과는 보기 좋게 성공!
바람만 잘 불어주고, 연이 균형만 잘 잡혀 있으면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잘 날더군요. 7살 된 아들 손에도 쥐여줬는데 훨훨 나는 연을 직접 조종하는 성취감에 참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던 아빠들이 편의점에서 작은 연을 사 와서 신명나게 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날리기에 성공한 아빠들끼리 서로 쳐다보며 눈인사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연날리기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훨훨 나는 연과 함께 모든 고민도 함께 날려버리시죠!

#연날리기 #아들과함께 #한강공원 #어린시절추억

문성진 대리(이수스페셜티케미컬 기획팀)

하늘을 보며 달리는 출근길, 팍팍한 서울 생활에 활기를

이번 겨울은 유독 추위가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갑자기 온 세상에 눈을 뿌리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동장군의 등장도 그러려니 하며 이해했었지요. 항상 차와 오가는 사람들로 빽빽하던 도로를 보다가 한산해진 새하얀 출근길을 보고 있노라면 그간 제가 얼마나 바깥 풍경에 관심 없이 핸드폰만 보며 아침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됩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덕분에 지난해 11월 말까지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색으로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던 잎들은 갑자기 내린 눈에 덮여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지만, 오래도록 가지에 매달려준 단풍들 덕에 팍팍한 서울 생활에 활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움츠러들며 밖으로 나가기 꺼려졌을 때, 따뜻했던 이번 겨울을 조금 더 길게 간직하고자 찍은 사진 한 장이 뿌듯하게 생각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정말 겨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늦은 추위 덕에 단풍과 눈 덮인 나무를 구경했던 날, 잠깐이나마 바닥 대신 하늘을 보며 출근한 날이 더욱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출근길 #눈덮인단풍 #활기 #좋은기억

손문영 사원(이수화학 신사업개발팀)

대관령 삼양라운드힐 - 원 없이 설경을 누릴 겨울 여행지

지난해 11월 말 이른 폭설로 인해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덕에 출퇴근길은 험난해졌지만, 곳곳에 눈이 덮여 평소와 달라진 풍경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 일상에서 벗어나 원 없이 눈 구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평창 대관령에 위치한 삼양라운드힐(구 삼양목장)입니다. 이곳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제설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사람 키만큼 쌓인 눈들이 목장 전체에 드넓게 펼쳐져 있고, 나무에는 매서운 눈보라를 맞고 바람결대로 자리한 눈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눈오리 집게나 눈썰매 등을 미리 구매해서 가시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눈 사이로 발을 푹푹 빠뜨리며 즐겁게 놀고, 배가 고파지면 목장마트에서 삼양 시그니처인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여러 간식을 드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겨울,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삼양라운드힐에서 겨울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대관령 #삼양라운드힐 #겨울여행 #눈구경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hjkim1@isu.co.kr

지구마을 주민 사귀기
내 안에 세계를 들여놓는 일

OTT의 세계는
단지 시간을 소비하는 미디어 서비스 그 이상입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을 넓힌
지구촌 주민을 사귀는 일입니다.

돌멩이 하나도 스승인 삶
업무공간에서는 나의 에너지를 내어놓는 일
나만의 공간에서는 내 안에
세계를 들여놓는 일입니다.

잘 만난 콘텐츠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삶
존재의 용량을 키워
일의 에너지로 재충전 될 것입니다.

이원준 사원의 추천 콘텐츠

이원준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최근 퇴근 후 취미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 몸이 가뿐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당황했지만, 매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작은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즘 감기 몸살에 걸려 잠시 운동을 쉬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땀 흘리며 운동할 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푹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중에 건강관리 잊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coupang play 탑건 & 탑건: 매버릭

| 탑건 1986 | 15+ | 밀리터리, 액션 | 탑건: 매버릭 2022 | 12+ | 드라마, 액션

스릴 넘치는 공중전, 동료애와 감미로운 로맨스, 내면 갈등 깊이 있게 그려져

저와 아버지는 다른 영화 장르도 좋지만 액션 영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버지 추천으로 탑건 시리즈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개봉한 탑건: 매버릭은 36년 만에 나온 후속작으로 영화관에서 본 후, 집에서 원작 탑건까지 정주행하였습니다. 1986년에 개봉된 작품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영화였습니다. 탑건은 벌써 3번 정주행 했네요. 두 작품 모두 실제 전투기 촬영을 통해 더 긴장감과 몰입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전 정신과 리더십, 동료애는 큰 울림을 주었고, "용기와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즐길 수 있었던 이 영화는 저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영화 추천과 함께 여행 갈 때 듣기 좋은 해변씬 OST도 추천드립니다. [OST - I Ain't Worried / OneRepublic]

정주영 대리의 추천 콘텐츠

정주영 대리
(이수앱지스 제품파트)

얼마 전,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드디어 입주했어요! 재미 삼아 넣었던 청약에 덜컥 당첨됐을 때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제는 무사히 새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입주 준비가 생각보다 많아 통장이 텅장이 됐지만, 3년 동안 꿈꿔왔던 로망을 하나씩 이루며 살아가는 매일이 행복 그 자체예요. 특히, IOT를 활용해 집을 자동화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는데, 지금은 제 생활 패턴에 맞춰 집을 꾸미고 자동화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답니다!

wavve 피의 게임 3

2024 | 15+ | 예능

무료한 일상에 도파민 뿜뿜하는 흥미로운 콘텐츠 협업, 배신, 깊은 통찰력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평소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웨이브에서 피의 게임 3가 시작하길래 봤는데 5분 만에 몰입되었고 주말을 불태웠습니다. 9명의 참가자가 주어진 미션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며, 해결 못하면 데스매치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신선하면서도 도파민이 생성되는 재밌는 작품이에요. 유명 연예인, 유튜버, 멘사 회원까지 출연해 사람의 감정, 심리 등을 이용해 협업과 배신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첫 방송에 장동민 씨가 남들이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돈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그림 한 장을 보고 추론하며 키워드를 찾는 부분도 신선했습니다. 다양한 통찰력, 상상력은 물론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아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도파민이 뿜뿜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NETFLIX 탈주

2024 | 12+ | 액션, 밀리터리

탈주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두 남자의 숨 막히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임규남(이제훈)과 그의 친구 동혁은 서로 다른 이유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북한군 장교 리현상(구교환)과의 대립은 점점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액션 장르답게 탈북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동감 있는 추격전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규남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감정이입하여 감상하면 더 긴장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대사: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추가 추천 콘텐츠

YouTube 자취남

구독자 | 83.4만명

자취남 채널은 다양한 사람들의 집과 생활 공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친구 집을 방문한 듯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집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살림 꿀팁과 인테리어 아이디어, 동네 분위기 등 실용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나 물건에 얽힌 사연을 들으며 공감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점이 이 채널의 매력이에요.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취향 물씬, 개성 반짝 AI 추천 여행 코스

이번 여행 어디가 좋을까?

▎챗 GPT를 사용해 구성했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 겨울이어야만 하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마음 깊이 담아둔 '버킷리스트' 겨울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 장관이고 절경인 풍경을 바라보며, 2025년의 첫 스타트를 특별하게 끊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줘.

AI

겨울이 주는 특별함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진정한 겨울의 매력을 품은 나라로 떠나보세요. 1월과 2월은 설경이 절정을 이루며 겨울 액티비티와 축제를 즐기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계절의 하이라이트를 만끽하고 싶다면, 장엄한 설경과 독특한 겨울 문화를 자랑하는 캐나다와 핀란드를 추천합니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겨울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겨울 감성을 선사하며 겨울 여행 버킷리스트 지역으로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 - 장엄한 설경과 어드벤처

캐나다는 겨울이 되면 거대한 산맥과 울창한 숲이 순백의 눈으로 덮이며, 그 광활한 대지는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변합니다. 눈 속에서 다이내믹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휘슬러 블랙콤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미 최대의 스키 리조트로,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와 세계 정상급 설질을 자랑합니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죠. 또한 옐로나이프 오로라 빌리지에서는 폭죽 터지는 것 같은 초록빛 오로라가 하늘을 물들이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 - 마법 같은 윈터 원더랜드

핀란드는 겨울 여행지로 전 세계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눈으로 덮인 대지와 얼어붙은 호수,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는 핀란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전통적인 핀란드식 사우나와 함께 몸을 녹이고, 한밤중에는 오로라를 감상하며 겨울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플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해 마법 같은 신비로운 풍경과 함께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의 환상적인 쇼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과 겨울 여행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핀란드 중 어느 나라로 떠나는 편이 좋을까? 하나를 고른 후,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자세히 설명해줘! :D

AI

두 나라 모두 매력적이지만, 다채롭고 특별한 버킷리스트 여행 경험을 원한다면 캐나다를 추천합니다. 캐나다는 웅장한 자연과 활기 넘치는 겨울 액티비티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초보 여행자부터 모험을 즐기는 사람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여행지입니다.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휘슬러 블랙콤 세계 최대의 겨울 스포츠 메카

캐나다 휘슬러(Whistler)는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경기가 이뤄졌던 곳으로,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위치한 휘슬러 블랙콤은 두 개의 거대한 산을 아우르는 북미 최대의 스키 리조트를 자랑하며, 스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익스트림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헬리 스키(Heli-Skiing)는 휘슬러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로,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설원으로 이동하여 스키를 즐기는 경험입니다. 또한, 가이드와 함께 휘슬러의 광활한 설원을 탐험할 수 있는 스노모빌(Snowmobiling), 끝없이 펼쳐진 도전적인 지형과 하이킹으로 접근 가능한 숨겨진 라인 및 가파른 드롭을 자랑하여 스키 애호가들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백컨트리(Backcountry), 경험 없는 일반인도 올림픽 선수처럼 125km/h 이상의 속도로 10개의 커브를 질주할 수 있는 패신저 봅슬레이(Passenger Bobsleigh)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옐로나이프 밤하늘을 수놓는 겨울의 마법, 오로라 헌팅

캐나다 북부 지역 옐로나이프(Yellowknife)는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1월과 2월은 북극광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맑고 추운 겨울밤에는 오로라를 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옐로나이프는 오로라 관측 성공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곳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초현실적인 빛의 춤을 경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오로라 투어는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진행되며, 따뜻한 텐트나 캐빈에서 편안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야외로 나가 눈밭 위에서 오로라를 감상하거나, 사진작가와 함께 오로라 촬영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투어를 마친 후, 캐나다의 전통 핫 초콜릿이나 북극권 특유의 따뜻한 요리를 즐기며 여행을 마무리하면 평생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것입니다.

AI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 와인(Ice Wine) 생산국입니다. 아이스 와인은 영하 -8℃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 얼어붙은 포도를 수확해 만드는 고급 디저트 와인으로, 특유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산미를 지니기에 처음 맛보는 사람들도 매료될 만한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아이스 와이너리도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이스 와이너리 가장 달콤한 겨울의 맛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같은 아이스 와인 생산이 활발한 지역에서 다양한 와이너리 투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어에서는 포도가 얼기까지의 독특한 자연 과정과 와인 양조 기술을 배우며, 시음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아이스 와이너리들은 설원에 둘러싸인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눈 덮인 포도밭 사이를 거닐며 따뜻한 와인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이 코너는 AI를 활용하여 여행 코스를 추천받아 작성된 것으로 개괄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진 출처: whistlerblackcomb.com / yellowknife.ca / destinationontario.com)

유튜브의 바다에서 건진 재미와 의미

묵은 나를 부수고 새로 쌓아 올릴 때
책은 도끼, 책은 벽돌!!

세상은 좁아져서 지구촌,
할 일도 많고 책은 더 많습니다.
잘 골라 나를 이룬 책은
내 삶을 주행할 연료의 주유 탱크이며
내 맘에 드는 나를 짓는 벽돌입니다.

골 싸매고 파는 독서는 아재들의 일!!
책으로 놀고 책에서 충전하기
고수들의 필터링을 거친 요긴한 책들을
고르고 걸러서 쏘옥~
지금 내게 딱이야 맞춤 책 골라주는
책 추천 채널 헤쳐모여~~ 클릭!!

잠자리 머리맡에선 꿀잠 수면제
말짱한 정신으론 인생 영양제

일당백

구독자 | **46.2만 명**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할 **백** 권의 책>을 모토로 한 대문을 열면 책 한 권을 중심으로 영화, 음악, 역사 등과 버무려내는 양질의 수다 사랑방입니다. 풍부한 독서기반의 해박한 지식과 해석은 통쾌감을 선사합니다.

눈을 통한 독서가 아닌 귀를 통해 재밌게 지적 영토의 주민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에피소드는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저자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일부 영상엔 *정트리오의 캐미가 맛깔을 더하며, 특히 정미녀가 중간중간 던지는 질문은 소화력을 돕습니다.

*정트리오 [정박=운영자 정승민 / 정프로=방송인 정영진 / 정미녀=기상캐스터 정선영]

재생목록 - 동영상 875개
시즌 1 다시 듣기 - 209개 / 시즌 2 다시 보기 - 119개 / 일당백 영화 - 21개 / 시즌 3 정주행하기 - 395개 등

운영자 정박은 서울대에서 인류학 등 수학, 서울신문 기자, 기업과 연구소 등을 거쳤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저서로 <우리 시대 고전읽기>, <한국사 특급 떡국열차>(공저) 등이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북 코치 - 책 추천해 주는 남자
지식에서 지혜로, 호기심에서 통찰로

책추남TV

구독자 | **42.2만 명**

만 권이 넘는 독서량과 고유한 독서력을 바탕으로
한 책 추천해 주는 남자입니다.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책, 숨겨진 베스트 북들을 찾아 주옥같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도서 추천 채널입니다.

대문에 들어서면 디테일하게 세분화된 영역별 주제를
대하게 됩니다. 이만한 숫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머어마하게 방대한 카테고리와 재생목록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일단 관심분야로 따라가다가
또 끌리는 대로 유턴해서 다른 영역으로 카테고리의
골목을 누비다 보면 지적 욕구에 불이 확 지펴지며
차근차근 앎에서 지혜로움으로, 호기심에서 통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3,400개
건강책추남 - 219개 / Money책추남 - 256개 /
힐링책추남 - 29개 / 성공책추남 - 299개 /
지혜책추남 - 1,219개 / 인간관계책추남 - 16개 등

» 독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전해주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 <나비스쿨>을 통해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해당 주제 강의 영상을
따로 모은 <강추남>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콕 집어서 팍 줄여서 딱 세 가지로 압축
거인의 어깨 위를 오르는 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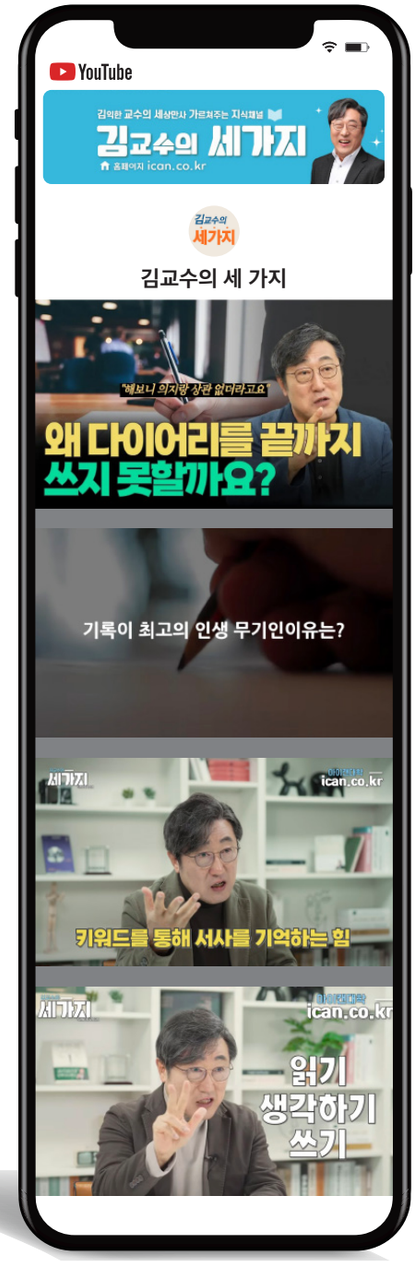
김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 **38.2만 명**

생활 속 인간관계에서도 도움 되는
<세 가지> 요약방식이 특화되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세상을 멀리 보고 싶은
우리에게 거기 오르는 사다리가 되어줍니다.

독서에서 끝나지 않도록 요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고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한 팁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록을 책임지는 국내 1호이자
최고의 기록 학자인 김익한 교수는
우리 뇌에 가슴에 새겨 지닐 노하우를
참고 도서와 함께 전합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1,100개
실용 글쓰기 방법 세 가지 - 21개 /
기록 메모 기술 세 가지 - 53개 /
성장하는 삶을 위한 세 가지 - 457개 /
프로 독서가를 위한 세 가지 - 91개 등



» 자기 계발 공동체 <아이캔유니버스>,
교육 프로그램 <아이캔대학> 운영 중 /
대표 저서로는 <거인의 노트>, <파서블>이 있습니다.

나다운 삶을 위한 정주행 내비게이션
책을 통한 삶의 지혜 나누는 공간

책과삶

구독자 | **39.4만 명**

매일 휴대폰을 충전하고 화분에 물을 주듯이
우리 정신에도 필수적인 섭생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자기 계발법과 인간관계 등을 책에서 사례를 들어
각 분야 전문가의 책과 함께 듣는 내면 충전소입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갈증을 가진 이들에게
유익한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며
독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줍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210개
수면 습관, 심리학 - 김태훈 교수
화술, 협상, 자기 계발 - 스피치 코치 이상윤 대표
인간관계 불륜 - 김병후
그 외 건강, 자녀교육, 책 읽기 등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상윤/박문호/김종원/김지용/이호선/박상미 등의
게스트가 맡아 각각의 전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이 책의 내용을
압축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닝타임이 15분 전후라
관심분야로 드나들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료 찾아 어디든 꿀벌 같은 반경
무슨 책 읽을지 막연할 땐 나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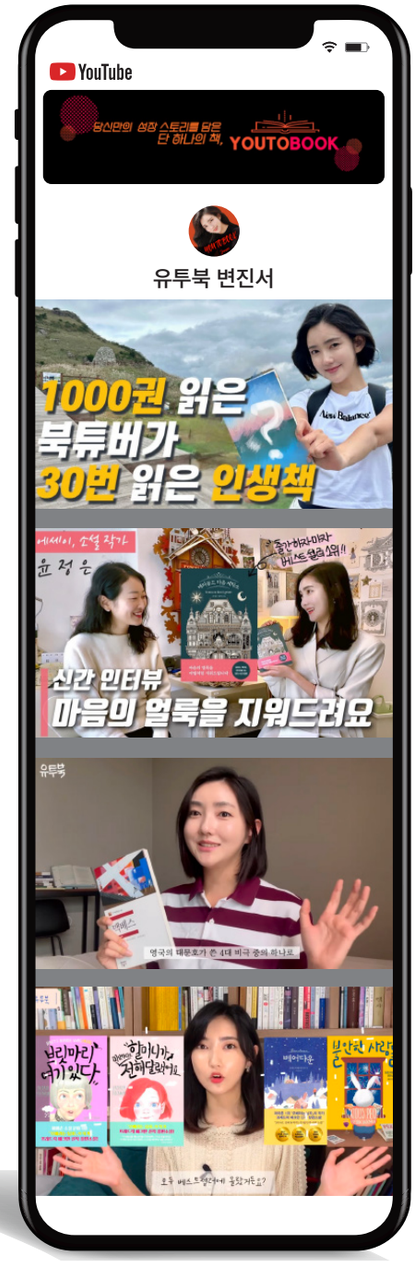
유투북 변진서

구독자 | **1.57만 명**

살림살이는 조촐하나 책에 대한 애정만큼은 찐북러버!!
내면의 단단함을 갖고 야무지게 활보하는 동선을 보면
아는 후배인 양 반갑고 흐뭇. 그의 독서에 관한 의견과
책 이야기는 사생활을 엿보는 듯한 밀도가 있답니다.

프로급의 내공으로 승부 하기보다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 피드백을 콘텐츠에 반영합니다.
방구석 유튜버만은 아니어서 동선과 반경이 제법 크고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벼운 기동력도 신선하여서
확~ 끌리기보다 은근히 끌리는 중독 가능 채널입니다.

재생목록 - 동영상 211개
낭만책방 -15개 / 유투북라이브 -11개 /
유투북브이로그 - 22개 / 유투북리뷰 -100개 /
유투북토크 - 69개 등



2023년 에세이집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너에게>를 출간, 독서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토리 셰프가
차려내는
식탁

환대(welcome)라는 성분의 아늑한 모성의 맛

잡채 Japchae

우리에겐 각자 저마다의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떠올리면 행복해지는 음식,
고갈된 정신에 링거 같은 치유식,
영혼을 감싸주는 아늑한 모성의 맛 ….
식탁 위에 놓인 것만으로도 꽃대접을 받는 잡채는
동서양 요리 중 독보적인 쫄깃 탱글에
체면을 접어도 용서가 되는 맛, 과욕도 부끄럽지 않을 맛,
몸과 맘의 힐링 요리입니다.

[스토리 셰프: 이재향]

식탁의 꽃, 포근한 위로 한 접시 - 잡채(雜菜)

투명한 연갈색 면의 촉촉한 윤기에 보암직한 때깔과 먹음직한 맛깔로 식탁에 놓인 자태에 눈이 닿는 순간부터 귀한 존재가 된듯한 푸근한 위로 한 접시, 사무치게 그리운 손맛을 떠올릴 때 특별한 기억을 소환하는 맛, 잡채!! 여러분에게는 소울푸드로 어떤 게 있나요? 남녀 30~60대까지로 구성된 어느 자리에서 나온 질문에 가장 많은 이들이 꼽은 건 **잡채**였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먹었던 맛, 엄마가 생일에 조물조물해 주신 첫 잡채의 기억, 장모님이 보여주신 환대의 맛…등이 오가며 모임 자리가 화사했습니다.

K푸드로 인기가 높은 우리 전통요리 잡채는 당근, 양파, 고기, 표고버섯, 시금치 등을 1차 조리한 뒤 삶은 당면을 간장 양념에 같이 볶아 내는 음식입니다. 쫄깃 탱글한 당면의 식감과 야채, 고기, 양념의 조화로 자극적이지 않아 많은 사랑을 받는 한국 대표 국민 요리이며 잔칫상, 명절상, 생일상은 물론 손님 접대의 특별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다란 당면이 필수 재료라 **장수의 상징**이며 접시에 담긴 5색의 비주얼도 화려해 **축복과 풍요의 메시지**를 담아 다른 음식들까지 돋보이게 하는 기특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잡채라고 쓰고 자체라고 읽는다, 감동 그 잡채?

MZ 세대에게 잡채는 밈(Meme)으로 익숙한 단어입니다. 힐링 그 잡채… 럭셔리 그 잡채… 어머나! 클린 그 잡채… **'자체'**라는 뜻으로 직전의 단어를 강조할 때 **잡채**라고 쓰는데요. 밈의 본질이 그러한 만큼 특별한 의미는 없고 [ㅈㅊ] 초성 조합의 유사성에서 생긴 묘한 말맛의 차용에 불과하나 문득 잡채가 먹고 싶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한영사전에는 잡채가 Mixed dish of vegetables and sliced meat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풀이에 가까우며 최근엔 그냥 **Japchae라는 고유어**로 표기합니다.

우리나라 잡채의 기원

궁중요리로 알려진 잡채는 조선의 기록부터 눈에 띄며 문자 그대로 잡(雜)채(菜), 잡다한 채소 모둠 요리였습니다. 팔도에서 진상된 식재료를 각각 특성에 맞게 조리해 하나의 모둠 요리로 올렸으며 수라상을 대한 왕은 잡채 재료의 질에 따라 지방 특산물의 작황을 가늠하는 밥상머리 국정, 즉 민생 파악 기능을 했던 요리였다고 합니다.

1670년대 요리 기록 장계향의 **<음식디미방>**에 잡채가 등장하는 데 재료를 살펴보면 오이, 무, 당근, 여러 가지 버섯, 숙주나물, 도라지, 거여목, 박고지, 냉이, 미나리, 파, 두릅, 고사리, 당귀, 동아, 가지, 꿩고기가 들어갑니다. 서명응이 1784년에 쓴 **<보만재집>**에도 잡채 조리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잡채와는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96년 간행된 조리서 **<규곤요람>**에는 숙주나물, 미나리, 쇠고기 등을 사용하며, 양념에 겨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꿩고기 잡채는 요즘의 고추잡채 비슷하며 가늘게 찢어 조리한 꿩고기를 볶은 야채와 함께 내는 것으로 상당한 정성을 요하는 요리였습니다. 한편, 찹쌀을 부쳐 각각 조리한 야채와 버무려내는 찹쌀 전병 잡채도 전해집니다. 근래엔 전통요리 복원에 힘쓰는 연구가들에 의해 **조선잡채**라는 요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양 '음식디미방'의 잡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바탕으로 재현된 꿩고기 잡채가 있는 식사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
(출처: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조선시대 조리법으로 만든 조선잡채. 콩나물, 고사리, 죽순, 연근, 시금치, 당근 등 갖은 야채와 편육, 소라를 겨자 소스로 무쳐내어 톡 쏘는 맛이 특징이다.
(출처: 박경주 셰프의 진주 음식 전문점 '하모')

시대 따라 변해온 맛 - 남북한의 잡채

오늘날 잡채의 재료인 당면(Cellophane noodles)은 감자, 고구마 등의 녹말을 원료로 한 마른 국수입니다.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청나라 시대로 처음에는 오랑캐 면이라는 의미의 호면(胡麵)이라고 불렸으나 후에 당나라 면, 당면(唐麵)이라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19년 황해도 사리원에 당면 공장이 생기면서 등장했으며 비슷한 시기의 요리책인 **<조선요리제법>**에 당면을 사용한 잡채가 처음 언급됩니다. 1921년 방신영이 쓴 <조선요리제법>에 도라지, 미나리, 고기, 표고버섯 등을 따로 조리해 **삶은 당면과 볶아내는 조리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점차 일반화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의 양조간장 확산도 현대식 잡채의 맛과 색, 향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박 조난으로 남한에 넘어온 어느 북한 병사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남한 음식으로 <마른국수>를 꼽았는데 추가 설명으로 보아 잡채인듯합니다. 사실 북한의 마른국수는 잡채와 별개인 국수 요리로 우리의 비빔국수와 유사합니다. 북한에서도 잡채는 대표적인 잔치 음식이며 조리법도 유사하나 당면 비중이 크며 각종 야채는 고명에 가깝습니다. 간장 대신 소금 간을 해서 갈색이 아닌 당면 고유의 색을 띠며 맛은 담백합니다.

[뇌물 그 잡채] 잡채 뇌물로 장관까지? - 역사 속의 잡채 기록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임금은 식사때마다 이충의 집에서 만들어오는 음식을 기다렸다가 수저를 들곤 했다. <광해군일기> 중

조선시대 문신 이충은 잡채 요리를 잘 해서 잡채 마니아였던 광해군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세간에서 잡채 판서, 잡채 상서 등의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면서도 호조판서 및 우찬성까지 올랐고 사후 우의정으로 추증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의 잡채 요리 비결은 바로 식재료의 특화였는데 넓은 온실을 만들어 겨울에도 채소를 길러 신선한 최상급 재료로 요리를 했다 합니다. 잡채 요리에서 야채의 신선도가 중요함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윤덕노 지음 <음식이 상식이다>)

동서고금 존재감 뿜뿜, 잡채의 인기

잡채는 화려하고 품격 있어 각종 경사에 빠지지 않는 전통적인 잔치 음식으로 상차림을 화사하게 격상시켜줍니다. 영양성분을 보면 당면의 탄수화물과 야채와 고기 및 양념재료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까지 기초식품 5군을 두루 갖춘 완전 식품입니다. 잡채는 주재료와 부재료의 경계 없이 모든 재료가 주인공으로 고유한 색과 존재감을 고스란히 살려 시각적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일품요리 대접을 받습니다.

갈비구이, 냉면처럼 자극적이지 않아 일본의 한식 애호가들에게도 단품 메뉴와 술안주로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특히 60~7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인 이웃들과 파티를 하거나 소소하게 음식을 나눌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바닥나는 게 잡채였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 잡채가 알려지면서 파스타 요리처럼 독립적인 식사로 먹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지? 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한 끼 식사로 잡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천, 지, 인의 합작품 - 잡채의 미덕

처음에는 날카로운 충격으로 시작해 서서히 끌리게 되는 나쁜 남자애인 같은 낙지볶음, 홍어도 미식으로 꼽지만 잡채는 순하고 너그러우며 친절합니다. 인기에 비해 비싼 재료도 아니고, 딱히 주저할 만한 맛도 전혀 없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의 시너지로 개별 특징을 훌쩍 넘어 제3의 맛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가공된 면과 자연의 속성 그대로를 지닌 5~7종 야채가 합쳐진 천, 지, 인 합작품으로 다분히 동양철학적 요리입니다.

예민한 센서의 슈퍼급 미각 측정기가 있어서 분석이 가능하다면 잡채는 확실히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느타리버섯과 조선간장을 섞어 쓰는 시골 외할머니의 맛이 다르고, 오돌한 목이버섯을 쓴 고모네 맛도 다르지만 둘 다 맛있습니다. 재료에 밴 그 산지의 기운은 물론 대 여섯 가지 양념으로 버무려내는 과정에서 조리하는 이의 고유한 취향과 섬세한 정체성이 다 녹아들어 완성되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이가 별로 없다 함은 모든 이를 두루 맞아주는 것일 터. 하늘과 땅이 그러하듯 넉넉한 포용성과 푸근한 관대함이 잡채의 핵심 미덕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잡채 요리

| **중국 차오미엔 / 고추잡채 / 짜후이** - 차오미엔(炒面소면)은 보편적 중국 볶음면요리로 간장과 굴 소스, 향신료로 깊은 맛을 냅니다. 고추나 피망, 돼지고기를 기름으로 볶아내는 고추잡채(칭자오러우쓰青椒肉絲청초육사)가 있습니다. 짜후이(잡회)는 이름 그대로 잡다한 재료를 모아 볶은 요리이며 광둥지방에서는 각종 야채를 가늘게 썰어 땅콩기름이나 돼지기름에 볶아 내는데 이것이 한국에 알려진 중국 잡채입니다.

| **일본 야키소바 / 참프루** - 일본식 볶음면으로 잡채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면과 채소, 고기를 볶아 소스를 얹어 먹는 요리로 달콤 짭짤한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오키나와식 잡채 요리로는 고야(여주)를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 낸 고야 참프루가 유명합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영향으로 스팸을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 **미국 찹수이(Chop suey)** - 잡채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당면 대신 다른 면을 사용하며, 소스 맛도 다릅니다. 고기, 계란, 콩나물, 양배추, 셀러리 등을 섞어서 빠르게 볶고 녹말 소스로 마무리한 후 면과 함께 먹습니다.

| **태국 팟타이(phat thai)** - 쌀국수 기반의 볶음 요리로 새우, 두부, 채소와 함께 볶아 땅콩 소스를 곁들여 먹습니다. 잡채와 비슷한 조리법이지만, 태국의 독특한 향신료와 소스가 특징입니다.

| **필리핀 판싯 소탕혼(Pansit sotanghon)** - 녹두 당면으로 만든 판싯의 일종이며 한국의 잡채와 제법 흡사합니다. 쌀국수로 만든 판싯 비혼과 생김새와 맛, 조리법이 비슷합니다.

| **대만 짜차이탕(雜菜湯잡채탕)** - 차이웨이탕(菜尾湯채미탕)이라고도 하며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인 일종의 찌개나 국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 **베트남 미엔** - 쌀국수와 비슷한 면에 다양한 해산물과 채소를 넣어 볶습니다. 생선 소스와 고수로 맛을 더합니다.

중국 고추잡채

일본 야키소바

태국 팟타이

MZ 세대의 잡채, 특별식에서 일상식으로

식탁에 잡채가 오르면 "오늘, 무슨 날?" 그랬던 특별식 잡채가 바야흐로 일상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끌리는 건 언제든 손을 뻗어 취하는 MZ 세대들의 특성을 겨냥한 기획력과 마케팅 덕분이죠. 게다가 혼밥 문화와 밀키트의 확산으로 소스만 넣고 데워서 먹는 간편식 잡채까지 있다 하니 잡채의 고전적 감성과 뭉클함은 증발 중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양쪽 면이 있듯, 간편과 풍요 이면에 스산하고 쓸쓸한 **특별식 실종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김치와 간장, 된장은 물론 약과, 강정, 식혜(감주) 등 어머니 손맛에서 산업의 아이템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수요공급 원리가 엄연하여 생긴 현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가슴·배를, 영혼과 육체를 흐뭇하게 채워 응원의 에너지로 삼았던 잡채만큼은 바로 그 **위로와 환대의 상징**으로 어머니의 주방에 오래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뚜기 '옛날 매콤잡채' / 비비고 '모둠잡채' / 요리하다 '한식 잡채' / 본죽 '전통 잡채' 등 잡채를 일상 반찬으로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류의 또 다른 가능성, K푸드의 대표주자

잡채는 어느덧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져서 불고기, 비빔밥, 김밥, 떡볶이와 함께 **대표적 5대 K-푸드**입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확장세와 더불어 늘어난 주재원은 물론 유학생들의 활약으로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에게 선보인 잡채는 게스트가 음식을 준비해 가는 **포트락(potluck) 파티에서 가장 매력 있는 주인공**으로 대접받습니다.

지구촌 한마을 시대에 잡채는 면 종류의 다양화를 비롯해 베이컨, 토마토 등 새로운 식재료의 결합과 조리법의 혁신을 통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K푸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며, 잡채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요리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작품이 주제와 변주를 통해 풍성해지듯, K푸드 잡채 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로 퍼져가고, 차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그리운 얼굴들, 그 한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류의 정체성이 확장되어 갈 K푸드, 잡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명절 무렵입니다.

'완벽 그 잡채' 맛보기, 잡채 맛집

음식디미방 한정식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비법을
그대로 담은 전통음식 코스요리,
꿩고기에 다양한 채소가
어우러진 원형의 잡채

Ⓐ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66
Ⓣ 054-683-7785

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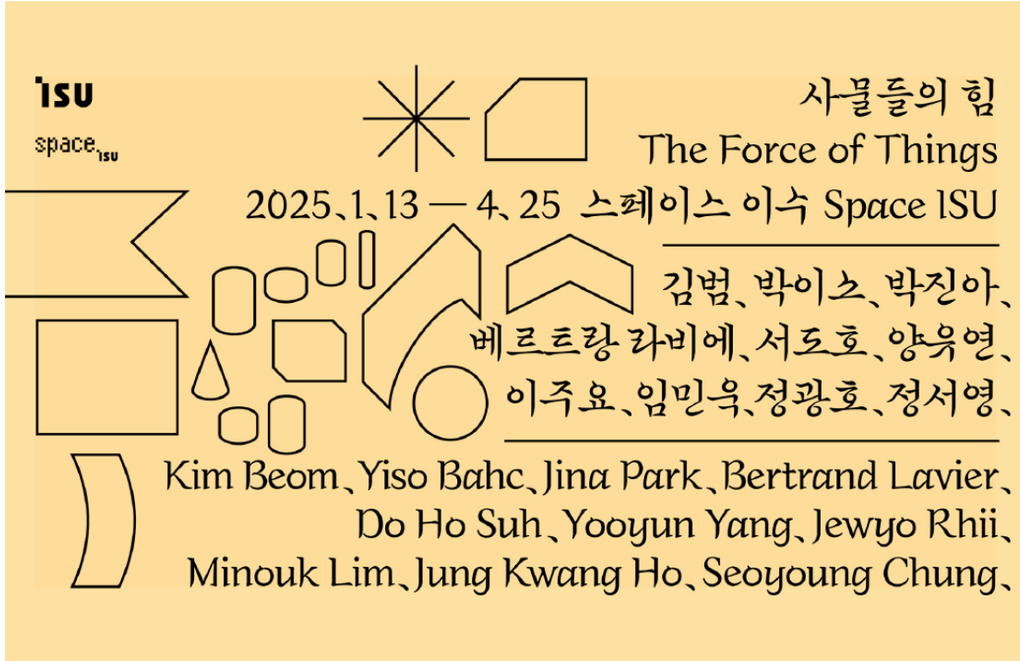
미슐랭가이드의
진주 향토 음식 전문점,
겨자소스로 무쳐낸
박경주 셰프의 조선잡채

Ⓐ 서울 강남구 언주로 819, 2층
Ⓣ 02-515-4266

롤앤롤 김밥

입맛 확 도는 중독성 강한
매운 잡채를 가득 채운
시그니처 메뉴 - 서강김밥,
K잡채와 K김밥의 완벽한 하모니

Ⓐ 서울 마포구 백범로 74, 101호
Ⓣ 070-7755-1010



익숙한 사물에서 생경한 미술작품으로 **사물들의 힘**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는 2025년 1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물들의 힘≫전을 개최합니다.
≪사물들의 힘≫은 일상적 사물들을 통해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를 오가며 미술에 대해 탐구하는 열 명의 작가의 '사물들'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 참여 작가: 김범, 박이소, 박진아, 베르트랑 라비에, 서도호, 양유연, 이주요, 임민욱, 정광호, 정서영

서도호, <유니폼/들: 자화상/들: 나의 39년 인생> 2006, fabric, fiberglass resin, stainless steel, casters, 169×254×56cm

사물의 낯섦에 경탄하는 작가 & 작품

매끄러운 비닐민속장판 (정서영, <-어>),
차곡차곡 쌓아 올린 A4 용지 더미 (박이소, <**A4를 위한 소조**>),
촉촉한 수분을 뿜어내는 대야, 스펀지와 수건 같은 잡동사니들 (이주요, <**가습기**>),
인생 시기마다 갈아입은 유니폼들 (서도호, <**유니폼/들: 자화상/들: 나의 39년 인생**>),
전시장 벽에 밝은 화면을 투사하는 프로젝터 (박진아, <**프로젝터 테스트**>),
어둠을 밝혀 주는 공사장 조명등 (양유연, <**From Early Evening**>),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항아리와 나뭇잎 그물망 (정광호, <**항아리**>, <**나뭇잎**>),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베르트랑 라비에, <**FM 400**>),
종이 점토 통닭 두 마리 (김범, <**12개의 조각적 조리법**>),
길게 펼쳐지는 보드라운 카펫 (임민욱, <**알라딘_Interchange**>)이 전시됩니다.

이주요, <가습기> 1998-1999,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박진아, <프로젝터 테스트> 2008, oil on canvas, 220×270cm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 전복적 상상력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물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익숙한 것들이면서도 작가들의 전복적 상상력으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 낯선 것들입니다. 이들은 사물과 작품, 삶과 예술,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채 그 사이를 오가며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새로운 언어와 대안적 문법을 고민하게 하고, 우리와 사물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정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무대에 오른 사물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적 사물이자 생경한 미술 작품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악동이면서, 함께 일하고 음식과 온기를 나누는 동료이고, 우리의 은밀한 개인사와 함께 겪어온 시대사를 조잘대는 이야기꾼이고, 때로는 우리 몸을 감싸 안고 위로하는 친구이자 우리가 알던 미술이 미술이 아니라고 가르치려 드는 선생입니다. 이들은 미술 전시장 한복판에서 매끄럽고, 꺼칠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환하고, 은은하고, 구불대고, 따뜻하고, 딱딱하고, 폭신한, 공감각적 풍경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와 사물 간의 접촉과 온기를 되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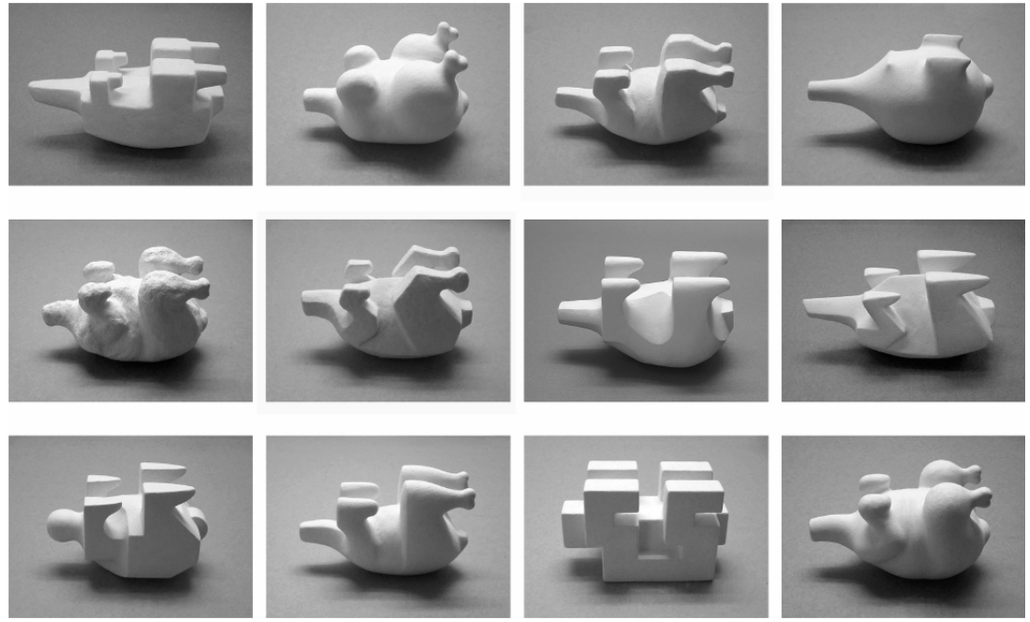
사물의 고유한 삶을 사유하기

이 전시에서 말하는 '사물들의 힘'이란 작가에게는 '미술인 것'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에서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관람자에게는 주변의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추동하는 힘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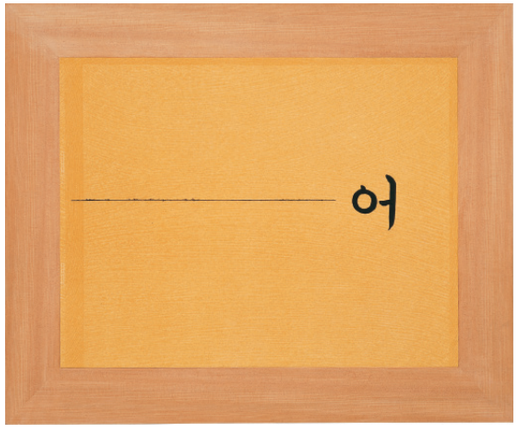
≪사물들의 힘≫은 실재 대신 정보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의 동반자인 사물들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잊혔던 사물들의 힘을 회복하며, 사물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열 명의 작가는 "사물을 빤히 바라보며, 사물에게 말을 걸고, 사물의 얼굴을 지각하고, 사물의 생동하는 관상을 알아보고, 사물의 영혼을 돌보며, 사물의 고유한 삶을 사유하고, 사물에 위협당하기도 혹은 매혹당하기도 하고, 사물로 인해 행복하고, 사물의 낯섦에 경탄하는" 이들입니다.

박이소, <A4를 위한 소조> 2000, cement, A4 paper, wood, styrofoam, 35×65×65cm

임민욱, <알라딘_ Interchange> 2008, synthetic fur, 160x622cm



김범, <12개의 조각적 조리법> 2007-2011, paper clay, actual size of small chic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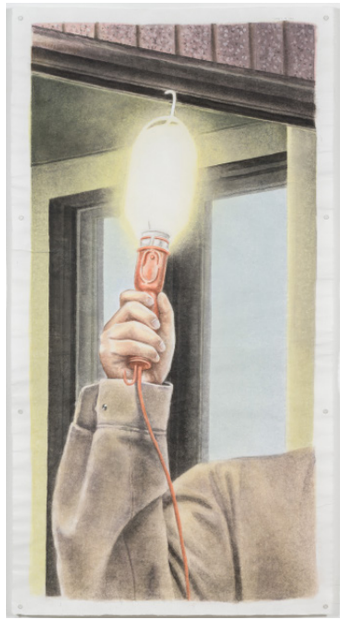


정서영, <-어> 1996, wood, linoleum, paint, 140×130×3cm

소소한 사물에서 마법을 소환하는 경험

작가들은 우리 주변의 소소한 사물에서 우리가 모르던 숨겨진 비밀을 포착하고, 사물의 신비를 되찾아 주고, 사물과의 풍요로운 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물의 마법을 소환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사물들 사이를 거닐면서 사물이 미술이 되는 순간에 동참하고, 우리 곁을 지켜 온 사물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양유연, <From Early Evening> 2024,
acrylic on Korean paper (Jangji), 142×75.5cm

눈코입을 사로잡는
간식 서프라이즈

우리 부서에도 간식이 찾아왔어요~
일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
횡재 같고 선물 같고 상 같은 간식이 띵!
팀원들과 함께 색다른 간식시간을 즐긴 직원들의 후기를 들어보세요.

2024년 가을호
당선 후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페타시스 구매팀

신성원 선임

넉넉하고 행복한 간식, 한 주의 시작을 행복하게!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월요일의 간식시간은 좀 더 특별합니다. 피곤함과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일하던 와중 간식이 도착하였습니다! 한 상 가득한 햄버거와 치킨들을 맛있게 먹으며 출장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등 모든 팀원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칭찬으로 더욱 보람찼던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간식 제공 덕분에 팀원 모두 한 주를 즐겁고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화학 검사팀 (울산공장)

최수욱 사원

위장뿐만 아니라 정신과 감성도 채워주는 간식

안녕하십니까?

간식 신청 사연을 보낸 줄도 모르고 잊고 있다가, 갑자기 당첨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보내주신 간식 덕분에 저희 팀 전원이 굉장히 오랜만에 한공간에 모여 잠깐의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들 참 좋아했습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요즘 사회인데 덕분에 모처럼 연말 분위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간식을 나누면서 든 생각인데요. 간식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나 외부의 음식점에서 삼삼오오 함께 하는 음식과는 아주 다르게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뿌듯하고 흐뭇하게 감성도 채워주고 업무에 몰두하던 경직된 심신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 밝은 얼굴에서 느껴지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일하던 중... 당 떨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정답은, 한 템포 쉬며 일할 맛 나게 에너지 충전을 도와주는
이수 간식 창고의 이븐한 간식 선물입니다 ^-^

그럼 다음 서프라이즈 간식의 주인공은 누구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의 팀이죠!

우리 팀이 간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신청 사연을
샤라웃(shout out) 해주세요!
푸짐하고 든든한 간식 선물을 배달 드릴 예정입니다 :D

이수그룹 전 계열사 부서 또는 팀의 간식 신청 사연을 기다립니다. (2월 초 접수, 2월 중순 발표)
우리 팀 자랑 및 간식이 필요한 이유와 치킨, 피자, 커피 음료 등 원하는 메뉴를 사연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당선된 사연 및 사진, 간식 후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hjkim1@isu.co.kr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남현호 기정
(이수페타시스)

박정빈 과장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박종민 부장
(이수앱지스)

유혜수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이대용 부장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한광수 부장
(이수화학)

이수 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03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4년 가을호 당첨자
(※가나다순)

남현호 기정(이수페타시스)
박정빈 과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
박종민 부장(이수앱지스)
유혜수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이대용 부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
한광수 부장(이수화학)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봄호 원고 마감은 3월 12일입니다.

※ 상기 일러스트는 <새해의 불꽃놀이를 보며 와인과 즐기는 만찬 테이블>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ISU CORPORATION
International

GARMIN

가민 Offline 브랜드 샵

가민 브랜드샵 대전점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 엑스포아트홀

가민 브랜드샵 잠실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7층

가민 브랜드샵 부산 본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5층

가민 브랜드샵 소공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가민 브랜드샵 강남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8층

가민 브랜드샵 센텀시티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4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몰 1층

가민 브랜드샵 광교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124 갤러리아 광교 5층

가민 브랜드샵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039 롯데 타임빌라스 의왕점 1층

가민 브랜드샵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7 롯데백화점 동탄점 5층

isugbs.co.kr